

일본경제리뷰 No.18_11

< Special Issue >

일본기업의 소형화

Contents

<Special Issue>	1
I. 한일경제동향	4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 ...	8
2. 경제정책	13
3. 기업전략	16
III. KJCF&KJE News	21
IV. 이달의 추천자료	24
V. 한일경제지표	25



< Special Issue > 소형화하는 일본기업

□ 일본기업의 소형화 진행

- 일본경제신문(2018.11.18.)에 의하면, 미국에서는 기업 1개사 당 시가총액이 2000년 말의 2.6배로 성장한 반면, 일본은 1.7배 성장에 그치고 있음
 - 이는 최근 일본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규모의 대형화에 쫓아가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
 - 기업재편 등에 의한 신진대사가 부진하여 성장력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, 기업의 경쟁 환경 재검토 등이 향후 과제로 되고 있음
- 2000년 말 9.9억 달러이었던 일본의 기업 1개사 당 시가총액은 2017년 말 17억 달러까지 증가했음
 - 그러나 미국은 27.5억 달러에서 72.3억 달러로 크게 성장한 결과, 미일 간 격차가 2.8배에서 4.3배로 확대되었음
 - 5억 달러였던 중국도 5.4배가 늘어난 27억 달러로 일본을 역전. 일중격차는 0.5배에서 1.6배로 확대됨
- 미국에서는 아마존·닷컴이나 구글 모기업 알파벳,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그룹 및 텐센 등 젊은 인터넷기업이 급성장했기 때문임
- 일본에서도 소프트뱅크와 퍼스트리테일링 등이 건투하고 있으나, 이러한 새로운 성장기업의 수·시가총액 면에서 열세에 있음

□ 일본기업의 소형화 배경

- 일본은 인터넷비즈니스 분야에서의 뒤늦게 출발, 일본경제의 침체, 규제완화의 부진, 경영자 마인드의 보수성, 어학력도 포함한 글로벌 인재의 부족 등,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
 -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일본기업들의 신진대사가 국제적으로 부진하다는 문제임

□ 일본기업들의 장수

- 그 증거로서, 상장기업의 평균수명을 시산한 결과, 신규상장을 포함한 상장사수의 연간평균이 100개사에 달함
- 상장폐지가 10개사라면 1년에 1/10의 기업이 소멸되는 셈이며, 전 기업이 바뀌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평균수명은 10년이라고 볼 수 있음
- 이러한 계산이라면 2017년 시점에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은 15년, 영국 런던의 증권거래소는 9년임
- 이에 비하여 일본거래소의 상장기업은 89년으로 매우 장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약 130개사가 신규로 상장, 이를 상회하는 약 150개사가 소멸되었음. 이 결과 상장사 수는 약 2,300개로 전년보다 약 60개사가 감소함
-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상장폐지의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, 약 80%가 M&A에 의한 것으로, 경쟁력의 가일층 강화를 노린 대형재편이나 독자적인 강점을 가진 소형기업 매수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임
- 2017년에 다우케미컬과 듀폰이 통합,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다우듀폰이 탄생하기도 했음
- 한편, 일본거래소는 약 100개사가 증가한 한편, 상장폐지는 40개사에 그침. 상장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약 3,600개사로 세계적으로 많음

□ 일본기업, 성장보다는 기업존속을 우선시

- 이와 관련하여, 재편 등의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으로 일본에는 성장이 아니고 기업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
-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데다 일본에서는 은행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M&A 등을 구사하여 적극적으로 성장을 노리기보다도, 차입금상환이 확실한 안정형 경영이 선택되기 쉬워 보여, 이것이 장수로 이어지고 있음

□ 일본기업의 낮은 도산전수

- 이 때문에 일본은 도산도 국제적으로 보면 적음
- 제국 데이터뱅크에 의하면 2017년까지 10년간 도산한 일본의 상장기업은 79개사. 동 기간 중 미국에서는 총자산 1억 달러 이상에 한하여도 331개사가 연방파산법 11조를 신청하고 있음
-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경영상의 선택지로 조기에 도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재생도 용이해짐
- 그러나 도산은 시대에 뒤쳐진 기업으로부터 자본이나 인재를 방출하여 새로운 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쉽게 하는 효과도 있음
- 성장지향이 약하다는 문제는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
- 일본은행이 연간 6조엔 규모로 상장투자신탁(ETF)을 구입, 동경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만 해두면 일정한 매입요청이 들어옴
- 실적부진을 방치하더라도 추가하락에 의한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기 어렵게 되었음. 성장이 아니고 상장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경영마인드의 토양이 되고 있음

□ 기업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 절실

-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이나 회사 그 자체의 매각, 파탄처리 등의 장애물을 낮추고, 경영자에게는 성장인센티브를 명확히 해야 함
- 기업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종합적인 시책이야말로 성숙기에 들어간 일본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임

I. 한일 경제 동향

□ 對日 무역구조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-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탄성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한국의 對日 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, 부품,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
 -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 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
 -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 통상정책의 핵심임
-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4.7%,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1.5%
 - 한편,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.2%

□ 10월 중 對日 무역

- '18. 10월 對日 무역적자는 2,175백만 달러로 3개월 만에 증가
- 對日 수출은 2,782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3.2% 증가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큼
 - 10대 對日 수출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산업용전자제품의 對日 수출 증가폭이 35.1%로 증가폭이 가장 큼(한일경제지표 1 참조)
 - 對日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對日 수출 감소폭이 -22.9%로 가장 큼
- 對日 수입도 4,957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8.6% 증가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큼
 - 10대 對日 수입 품목 모두 전월보다 대일수입이 증가한 가운데, 수송기계의 對日 수입 증가폭이 59.8%로 가장 큼

< 2018년 10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 %) >

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 수출	2,458	-2.3	1.5	2,782	50.5	13.2	25,410	16.3
對日 수입	4,180	-15.1	-1.3	4,957	12.2	18.6	45,987	1.2
무역수지	-1,722	-28.5	-5.0	-2,175	-15.4	26.3	-20,577	-12.8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'18.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, 크게 감소
 - '18.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96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81.0% 감소
- 한편 '18. 9월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297억 엔으로 전기대비 5.7% 감소
 - '18. 9월 對韓 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.9%

< 일본인 직접투자 추이 >

	2017	2018 2분기	2018 3분기	2018.8월	2018.9월
일본인 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1,862 (90.1)	504 (37.0)	96 (-81.0)	-	-
전체 외국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22,970 (7.8)	10,820 (119.3)	3,449 (-68.1)	-	-
일본의 對韓 직접투자(억 엔, %)	4,112 (18.8)	1,038 (4.5)	-	297(-5.7)	2,653 (794.6)
일본의 해외직접투자(억 엔, %)	559,108 (-18.0)	145,925 (-29.3)	-	32,698 (-26.2)	59,875 (83.1)

주 : () 내는 전기비 증가율,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,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-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함(2018.11.20. 연합뉴스)
- 이는 2015년 6월 소프트뱅크 그룹의 10억 달러 투자 이후 이루어진 추가 투자로,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임

- 일본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가 (주)농심과 협력해 평택시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 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생산·시판하기로 함(2018.11.16. 이데일리)
- 이번 협약은 아지노모토와 농심이 즉석분말스프의 한국 내 생산을 위해 올해 초 합작 회사를 설립, 아지노모토가 설비와 기술부문을 맡고 공장건축과 국내 유통은 농심이 담당하는 형태의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, 일본의 유명 종합식품기업이 최초로 한국에 식품생산시설을 설립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

□ 인적교류

- '18. 10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17.2% 증가
- 10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90,468명으로 9월보다 17.2% 증가
-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
- '18. 10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, 19.1% 증가
- 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571,200명으로 9월보다 19.1% 증가
- 이에 관서지역과 홋카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의 관광부흥지원사업 효과도 있음

□ 기타 한일경제 관계 관련 언론기사, 보도자료 등

- (일본경제신문 사설, 2018.11.13) 한국의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많음
- 한국정부가 자국의 조선업체에 과도한 공적인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여, 일본정부는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2국간 협의를 요청함. 정부가 개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태는 간과할 수 없음
-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룰에 따라, 사태의 시정을 위해 대응해주길 바램. 한일관계는 징용판결 문제를 둘러싸고, 긴장국면에 있으나, 조선 분야의 2국간 협의는 이것과는 관계없으며, 다만 시기가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임

- 일본정부는 3년 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선부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,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점 등 때문에 협의 요청을 단행했던 것임.
- 일본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3대 조선회사의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조치임. 해양프로젝트의 실패로 3년 전에 경영난에 빠진 동사에 대하여, 정부계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등이 총액 1.2조 엔 규모의 대형금융지원을 실시함
- 이에 더하여 선주가 선박을 발주할 때, 지불하는 착수금에 대하여 가령 대우가 도중에 파탄하여 선박을 제조하지 못했을 경우에, 착수금 반환을 공적기관이 대행하는 제도도 정비했음. 정부의 신용보완으로 신규 수주를 지원할 의도로 보임
-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을 공적지원으로 연명시키면, 조선시황의 회복이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남. 대우 이외의 한국 업체를 포함하여 자조노력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음
- 일본의 버블 후 경험에 비추어서도, 실질적으로 파탄한 기업을 정부나 은행의 힘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본래 무리가 있으며, 산업의 신진대사를 저해하고 경제 전체로서도 마이너스임
- 일본정부는 한국측을 강하게 설득하는 동시에,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국의 지지를 얻으면서 WTO제소도 추진해야 함
- 일본도 판민펀드 등을 통한 경영부진기업의 공적인 연명조치는 엄격히 삼가 해야 할 것임

II. 이달의 일본경제

1. 경기·무역 동향

□ 3분기 GDP성장율, 연율로 1.2% 감소

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8년 3분기(7-9월) 실질GDP(속보치)는 전기대비 0.3%, 연율 환산으로는 1.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1분기 이후 2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반전됨
 - 일본 전국적으로 계속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개인소비가 부진한 것이 주된 원인임. 수출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함
- 실질 GDP성장률은 시장예상치(연율 1.0% 감소)를 상회하는 감소폭으로, 2015년 4분기 이래 컸음. 1%정도의 경제실력(잠재성장율)도 크게 하회함
- 이번 전기대비 0.3%감소와 실질GDP를 떨어트린 요인의 내역을 보면, 개인소비를 포함한 내수가 0.2%포인트, 외수가 0.1%포인트 떨어뜨렸음
- 내수 중 GDP의 50%를 점하는 개인소비는 0.1% 감소함. 2분기(0.7% 증가)에 비하여 크게 떨어짐
 - 잇따른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관련 소비가 현저하게 감소함
- 민간설비투자는 0.2% 감소. 8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2분기(1.3% 증가)에 비하여 크게 감소함
 -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생산용 기계가 감소방향으로 기여했는데, 금년 여름 서일본 호우의 영향으로 건설 관련 부품공급이 침체되었기 때문으로 보임
- 한편 주택투자는 0.6% 증가로 5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
 - 주택투자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GDP에 산입되고 있어, 2분기에 신축공사의 증가율이 반영되었음

- 공공투자는 1.9% 감소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
- 외수의 내역을 보면, 수출이 1.8% 감소로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반전. 자동차수출이 부진한 외에,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물류량이 차단되는 등 생산을 지연시킴
-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수출이 대폭 감소한 점에 관하여, 아시아지역에 대한 정보 관련재의 수출력이 약해졌다고 지적, 자연재해만이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
- 수출에 계상되는 방일외국인의 일본내 소비도 둔화되었음. 자연재해로 인하여 방일 관광객이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. 수입도 1.4% 감소함

< 2018년 3분기 GDP성장율 >

		2017	2017			2018		
			2/4	3/4	4/4	1/4	2/4	3/4p)
GDP	전기비	1.7	0.5	0.5	0.1	-0.2	0.5	-0.3
	연율환산	1.7	2.0	2.0	0.6	-0.6	1.9	-1.2
개인소비(전기비)		1.0	0.7	-0.7	0.2	-0.0	0.7	-0.1
주택투자(상동)		2.7	0.9	-1.6	-2.7	-2.1	-2.7	0.6
설비투자(상동)		2.9	0.8	1.0	0.6	-0.1	1.3	-0.2
정부소비(상동)		0.2	0.2	0.0	-0.0	0.0	0.2	0.2
공공투자(상동)		1.2	4.7	-2.6	-0.4	0.0	-0.1	-1.9
수출(상동)		6.7	-0.1	2.0	2.2	0.6	0.2	-1.8
수입(상동)		3.4	1.8	-1.3	3.1	0.3	1.0	-1.4

자료: 내각부, p)는 1차 속보치

□ 2018년 말부터 다시 완만한 회복기조

- 그러나 2018년 연말에 걸쳐 일본경제는 다시 완만한 회복 기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임
 - 일본경제신문사가 민간 16개사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, 2018년 4분기 실질 GDP성장률 예측치는 평균치로 전년대비 연율 2.1%증가로 나타남
 - 3분기에 발생한 태풍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의 영향이 해소되기 때문임. 그러나 중국경제의 감소 등 외수가 흔들려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음.
- 일본 민간연구소들의 예측에서는 2018년 4분기 성장률은 2.1%로 1%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□ 경기 완만한 회복세

-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음
 - 수출과 생산 활동은 태풍 등의 재해 영향으로 약세를 띠고 있음. 한편 설비투자는 건조한 편이며, 개인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.
- 그러나 앞으로 일본경제는 재해의 영향이 일순하는 가운데,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설비투자자와 개인소비 등의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임
- 일본 내각부가 11월 7일 발표한 경기동향지수(CI, 2010년=100) 속보치는 경기의 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114.6으로 2개월 만에 하락
 - 특히 경기에 대한 기초판단은 개선에서 답보로 24개월 만에 하향 수정함. 9월에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큰데다,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도 포함한 경기의 실태를 측정하는데 재해의 영향이 소멸되는 10월 이후가 초점이 됨
 - 일치지수 산출에 영향이 컸던 것은 9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마이너스에 기여한 가운데, 영향이 컸던 것은 생산관련으로 철강과 전자부품, 수송용기기 등임
- 9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1.6% 감소
 - 야채와 해조류, 어개류 등 생선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한 외에, 태풍의 영향으로 외식도 감소
-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9월 기계수주액은 비철금속, 식품제조, 리스업 등의 투자감소로 8.3% 감소
 - 「일본은행단관(短観)」(2018년 9월)등에 의하면, 엔저와 일손부족 등을 배경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의 의욕이 살아나고 있어, 대기업제조업의 경우 2018년도 성력화투자와 생산증강투자를 중심으로 17.5% 늘릴 계획임
- 9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.4% 감소, 전년대비로도 2.5% 감소
 - 자동차와 생산용기계, 철강 등의 생산이 감소

- 9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도 0.1%포인트 낮은 2.3%
 - 특히 남성근로자의 실업과 비자발적인 실업이 크게 감소함
 -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도 0.1포인트 높은 1.64배로 197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, 일손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
 - 그러나 신규 구직자수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신규 구인수도 감소
- 10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6.1% 증가
 - 중국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17.0% 증가로 호조
 - 앞으로도 해외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이 지속될 전망
- 10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1.0% 상승
 - 유가상승에 따른 등유와 휘발유가격의 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했으며, 전월 대비 0.3% 상승
 -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작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□ 무역수지 적자 반전

- 10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4,493억 엔으로 전월의 1,396억 엔 흑자에서 크게 반전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3,702억 엔 적자에서 4,062억 엔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,903억 엔 흑자에서 5,734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
 - 전월에 줄어든 수입이 10월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 무역수지 적자 반전으로 이어짐
- 10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7.5% 증가한 7조 2,434억 엔
 - 수출수량증가효과 외에 엔저에 의한 수출금액증가효과가 컸음

-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철강의 수출 증가폭이 전월대비 14.2%로 가장 큰 반면,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자동차부품이 유일하게 1.6% 감소(지표 4)
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은, 모두 증가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16.9%로 가장 큼(지표 5)
-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대비 2.8% 증가
- 10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16.7% 증가한 7조 6,927억 엔
- 수입수량증대효과 외에 엔저에 의한 수입금액증가효과가 컸음
- 석탄 대신에 의약품이 5대 수입 품목에 포함되고, 모두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, 의약품의 수입증가폭이 42.9%로 가장 큼(지표 6)
- 주요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,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전월대비 27.0%로 가장 큼
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12.8% 증가(지표 7)

< 2018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 출	6.7	-1.2	0.5	7.2	8.2	7.5	67.4	5.1
수 입	6.6	7.0	-7.6	7.7	19.9	16.7	67.9	10.0
수 지	0.1	-78.7	-	-0.5	-	-	-0.5	-

자료 : 재무성

- 10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12.8엔으로 111.9엔으로 전월대비 0.8% 엔저
- 11월에도 엔저가 진행, 114엔대를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112엔-113엔대에서 추이
- 엔저의 배경으로는 미중마찰의 격화우려 후퇴,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정국 안정,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등을 들 수 있음
- 對원화 환율은 전월과 100엔당 1,003엔으로 보합세 유지

- 9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83.1% 증가한 5조 9,875억 엔
-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&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, 2016년 이후 M&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증가하고 있음
- 일본의 대외M&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, 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M&A의 증가, 둘째, 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, 셋째, 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&A증가 등을 들 수 있음
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794.6% 증가한 2,653억 엔
- 對한국 직접투자가 이렇게 전례 없는 급증을 보인 것은 2017-2018년 기간 중 한국에 신고된 일본의 초대형투자(2018년 6월 소프트뱅크의 1조 1,000억 원 및 2017년 10월 도레이의 1조 엔 등)의 일부가 2018년 9월중에 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임
- 9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0.9% 감소한 1조 8,216억 엔
- 무역수지와 여행수지의 흑자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임

2. 경제정책

□ 일중 정상회담

- 악화일로에 있던 중일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음
- 아베 총리가 7년 만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수상과 회담을 가짐. 베이징에서는 일중평화조약 4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일본으로부터도 많은 경제인들이 참석함
- 최근 일중 관계를 둘러싼 분위기의 변화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도 관련되고 있음. 수세에 몰린 중국측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일본에 접근하는 움직임이 현저함
- 양 정상은 2018년 10월 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일중관계에 새로운 역사적인 방향으로 해야만 한다고 표명함

- 아베 총리는 ①경쟁으로부터 협조로, ②상호 파트너로서 위협이 되지 않음, ③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 발전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함
- 합의된 양국 관계는 광범위함
 - 그 동안 효력을 잃고 있던 일본은행과 중국은행이 엔과 위안화를 상호 융통하는 통화 교환(스왑)이 재개됨에 따라 일본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기가 쉬워졌음
 - 이번 경제 분야에서는 많은 합의안건이 있었는데, 특히, 제3국 시장개척분야에서 합의 사업이 52개로 사업금액은 200억 달러에 달함
 - 핵심안건은 태국 공업단지의 재개발임. 에너지 효율을 높여 친환경 단지를 목표로 하여 공동인프라가 될 쓰레기처리장 및 쓰레기발전설비의 정비 분야에서 일중이 협력기로 함. 제3국에 있는 태국의 아마타사도 참가하여 일중기업의 이해를 동사가 조정하게 됨
 - 또 아베총리와 리커창 수상과의 화답에서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협의하는 일중 이노베이션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
 - 한편,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식품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과학적인 평가 후에 완화를 검토할 방침을 표명함

□ 엔저 폭, 1% 정도로 억제될 전망

- 많은 통화에 대하여 달러매입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, 엔저 폭(엔화의 대미달러 가치 하락률)이 1%로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임
- 2018년 외환시장의 특징으로 달러고는 미국금리의 인상에 의해 신흥국통화에 걸린 강력한 매도압력이 주된 원인임
- 반면, 미국의 보호주의를 배경으로 경상흑자를 가진 일본 등의 통화가치 하락압력은 약함. 신흥국경제에 관한 불안감이 안전통화인 엔화의 매입재료가 되는 점도 엔저 압력을 완화시킴

- 2018년 시장에서 달러매입이 확대된 것은 실효환율을 보면 알 수 있음
 - 실효환율은 각·지역 통화에 대한 달러환율을 무역 비중에 기초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서, 국제결제은행(BIS)의 산출치는 2018년 10월말 현재 33년 만에 높은 수준임
- 달러고의 원동력은 신흥국·지역의 통화에 대한 상승임
 - 미국 연방준비이사회(FRB)에 의하면, 아시아와 중남미 등 19개 신흥국·지역 통화에 대한 달러 실효환율지수는 연초에 비하여 약 11% 상승함
 -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상승에 의해 신흥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임
 - FRB의 대규모 금융완화 시에 신흥국에 자금이 유출하여, 그 경상적자를 메우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던 자금이 역류하고 있음
 - 반면, 일본이나 유로권 등 7개 선진국·지역의 통화에 대한 실효환율상승률은 약 5%에 그침
 - 선진국의 자금도 달러매입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, 통화의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적음
 -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경상흑자를 안고 있는 일본이나 유로권의 통화가치 하락에 비판적임. 시장참가자가 엔이나 유로를 팔기는 어려움
- 특히, 엔의 하락률은 연초에 약 1%로 소폭이었음
 - 유로화는 이탈리아의 재정불안 등의 매도재료도 있어, 선진국통화 가운데서는 하락률이 크나, 엔화는 역으로 매도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있음.
 - 즉 엔은 안정통화이기 때문에, 대미 자금유출에 의한 신흥국경제의 불안이 의식되면 이전만큼은 아니나 자금이 엔으로 도피하기 쉬움
- 엔화는 현재 달러당 113엔대 후반
 - 2018년 말에는 달러고가 되기 쉬운 계절성도 있어 115엔 정도까지 엔저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, 그렇게 되더라도 2% 정도의 하락임

- 추가에 대해서는 달러에 대한 엔저가 한정적이라면 플러스효과는 적고, 엔이 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하여 상승이 현저한 점도 마이너스임
- 한편, 달러에 대한 엔저가 제한적이라면, 2019년 시작되는 미일물품무역협정(TAG)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름
- 동 협정에 관한 일본 측의 우려는 통화약세유도를 금지하는 환율조항의 도입 가능성이 있는 점임
- 엔저촉진효과도 가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의 자유도가 하락할지도 모름
- 그러나 엔저 폭이 적다면 엔저유도는 하고 있지 않다는 반론의 여지가 일본 측에서 나올지도 모름
-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낮음을 고려한 실질기준의 엔저를 지적하는 논의도 미국측에 있음
- 그러나 실질 엔저의 주된 원인이 일본의 디플레이션이라면 오히려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올 것임

3. 기업전략

□ 일본기업들의 대미수출거점, 중국으로부터 탈출

- 중국제품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관세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음
-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 등이 대상으로 일본전산과 파나소닉 등 일본기업 외에, 중국 기업들도 가전업체인 TCL그룹 등이 생산을 멕시코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음
-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판단하고 생산체제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
- 일본전산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과 가전부품의 생산 일부를 멕시코에 이전함

- 2018년도 중에 약 200억 엔을 투입, 멕시코 기존공장의 인접한 곳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함
- 차량용은 전동과워 스티어링 모터, 가전용은 에어컨부품 등을 이관,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림
- 이들 부품은 미국이 25%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. 동사 회장은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, 이러한 것은 연쇄적이라고 하여 생산지를 재검토하여 비용상승을 회피할 생각을 내비쳤음
- 미국에서의 자동차생산에서는 중국제 모터 등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, 일본전산은 경합품으로의 대체수요도 고려하고 있음. 중국에서는 전기자동차(EV)의 구동모터 등 내수에 대응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음
- 파나소닉은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카스테레오 등 차대용기기 중 대미 수출용을 태국이나 멕시코로 돌리고 있음
- 전자부품과 미국 테슬라용으로 생산하는 차대전지의 일부원료도 중국제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. 제재의 영향은 이익 기준으로 최대 100억 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함
- 중국기업들도 대미국 수출용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고 있음
- TCL그룹은 멕시코 공장에서 액정TV를 증산, 중국 본토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함
- 2018년 생산대수는 300만~400만대로 2017년의 200만대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. 액정 TV는 미국이 9월까지 발동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품목확대에 대비하고 있음
- 생산지의 재검토는 서플라이체인에도 영향을 미침
- TV의 경우, 전자부품이나 액정패널,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 등 원재료의 생산지나 구입처의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- 폴리에스텔 관련 대기업체인 저장하이리더신재료(浙江海利得新材料)는 해외생산거점으로 2020년 중반 경에 베트남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임

- 동사는 매출액의 20%를 대미수출용이 점하고 있음. 범용화학품은 중국 이외의 공급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체지역과의 경합은 적은 편이나, 중국 이외의 거점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그러나 대규모의 내수를 가진 중국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최근에도 견조하게 보임
- UN무역개발회의(UNCTAD)에 의하면 2018년 1-6월은 70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% 증가, 투자선으로서 가장 큼
- 동남아시아, 대미수출거점으로 유리
-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수출거점으로서의 인건비 상승을 배경으로 한 동남아시아로의 이전이 가속될 것 같다는 지적임
- 자동차용 안테나제조업체인 요코오는 중국생산분의 70%를 수출하고 있으나 미국에 의한 제재발동의 영향으로 베트남으로의 생산이관을 앞당기고 있음. 2020년대 중반까지 수출분을 이전할 계획이나 대미수출용은 금년중으로 완료할 예정임
- 태국의 스마트부품업체인, 델타·일렉트로닉스·타일랜드의 사장은 다수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밝히고 있음. 베트남 섬유회사의 간부도 대미수출거점으로서 유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

□ 일본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

- 일본의 일용품 업체들이 잇따라 증산투자에 참여하고 있음
- 시세이도는 2022년까지 약 1,400억엔을 투자할 계획임
- 코세와 유니참도 신공장을 가동시킬 계획임
- 방일 관광객들로부터의 인기와 해외전자상거래의 확대 영향으로 일본에서 제품을 증산하여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임

- 이에 따라 해외에서 높아지는 일본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, 내수형산업의 대표적인 일용품 수출을 새로운 기동으로 육성하고 있음
- 시세이도는 2020년까지 국내 능력증가에 약 95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, 2022년까지 약 450억 엔을 늘릴 계획임
- 마루베니와 아시세도의 주력 거점인 가케가와(掛川)공장에서 2021년까지 신규 생산동을 건설, 증사에 대비하고 있음. 화장수 등이 주력인 오사카 공장도 폐쇄방침을 철회했음.
- 동사는 방일객의 수요 등이 전인함에 따라 2018년 12월기에 매출액, 영업이익 모두 과거 최고를 갱신할 전망이다
- 2019년에 도치키현, 2020년에 오사카부에 일본에서 36년 만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, 공급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보아 투자를 늘릴 계획임. 동사의 세계생산능력은 80% 증가하게 됨
- 코세도 산하 고급화장품메이커인 알비온이 2020년까지 약 100억엔을 투자, 사이타마현의 공장에 새로운 생산동을 건설할 계획임
- 알비온은 스킨케어상품이 방일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어 2018년 3월기의 매출액 680억 엔의 20%는 방일관광객의 소비임
- 유니참은 2019년 봄 후쿠오카에서 26년 만에 신규 공장을 가동시킬 계획임.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고급기저귀를 생산, 중국으로의 수출거점으로 할 계획임
- 종래 일용품 메이커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에 생산거점이나 판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음
- 그러나 인터넷 통신판매의 보급으로 알리바바 그룹 등의 해외전자상거래망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산을 가지지 않고도 해외전개를 하기가 유리해졌음
- 2017년 방일객수는 2016년 대비 19% 증가한 약 2,869만 명으로 5년 연속 과거최고를 갱신함
- 2017년의 방일관광객에 의한 구입총액은 1조 6,400억엔 중, 화장품과 일용품은 인기가 높아 약 40%를 점하였음

- 방일관광객들은 귀국 후에도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하여 계속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
- 일본제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 해외에서의 소비가 일본 국내투자자나 고용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음
- 이제까지 일본의 수출을 견인해왔던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·전자부품이었음
- 일용품 등은 내수 중심이었으나, 2017년의 화장품 수출액은 약 3,715억 엔으로 5년 연속 과거 최고를 갱신함. 기저귀나 문구 등도 포함하면 수출총액은 8,000억 엔을 상회함
- 앞으로 기능 및 사용하기 편리함 등의 인기를 배경으로 해외수요를 흡수하는 움직임이 진행되면 수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일용품 이외에도 국내거점의 증산투자가 잇따르고 있음. 가루비는 2018년 여름 약 70억 엔을 투자하여 교토 공장에서 과일이 포함된 시리얼 「후그라」의 새로운 라인을 가동시켰음
- 메이지도 2020년 가을 사이타마 공장에 분유 등을 생산하는 신규 동을 가동할 계획임
- 이들 모두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축소일로의 국내 사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고 있음.KJCF

III. KJCF & KJE News

□ 한일재단·한일경제협회 사업 및 행사 개최 결과

2018 일본취업박람회

일시 : (부산) 2018년 11월 5일(월)
(서울) 2018년 11월 7일(수)
장소 : (부산) BEXCO
(서울) 잠실 롯데호텔
규모 : 일본기업 112개사
내용 : 취업박람회(1:1 채용 면접), 취업설명회, 취업컨설팅



모노즈쿠리 기반 스마트팩토리 세미나

일시 : 2018년 11월 15일(목)
장소 : 부산 롯데호텔
규모 : 약 100명
강연 : 모노즈쿠리의 이해와 활용, 실전준비
4차산업혁명 스마트공장, 모노즈쿠리
기반 스마트팩토리 추진 우수기업 사례 등



제25회 한일(큐슈)경제교류회의

제17회 한일(큐슈)경제교류회의

일시 : 2018년 11월 19~21일
장소 : 전라북도 군산시 GSCO
규모 : 한중일 정부, 경제단체, 대학, 기업
관계자 300여명
내용 : 본회의, 주제별 포럼, 인재매칭상담회,
방재 관련 상담회 등

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모집 안내

1) 「제조강국 일본 중소기업형 모노즈쿠리 IoT 전략 세미나」 참가자 모집 안내

- 장 소 : 홀리데이인 인천송도호텔 2층 그랜드볼룸
- 일 시 : 2018년 12월 12일(수)
- 규 모 : 인천,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약 100명
- 프로그램 :

시 간	내 용	강 연 자
13:00~14:00	참가자 접수 및 등록	
14:00~14:15 (15')	개회사 및 재단 소개	서석승 전무이사 -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14:15~15:05 (50')	【기조강연】 IT를 활용한 일본의 제조혁신	박영원 교수 - 사이타마대학
15:05~15:55 (50')	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제조혁신 및 스마트팩토리 추진전략	임재영 고문 - 한국인더스트리4.0협회
15:55~16:05	Coffee Break	
16:05~16:55 (50')	【일본 현장사례 등】 - IT활용 품질/생산성 향상 등	아베 타케시 중간연구원 - 아오야마가쿠인 휴먼·이노 베이션·컨설팅 주식회사
17:00~18:00	종합 토론(Q&A)	좌장 및 발표자 3명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592 참조

2) 「2018 한일산업기술포럼」 참가자 모집 안내

- 주 제 :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한일 산업 협력
- 장 소 : 웨라튼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 1층 로얄볼룸
- 일 시 : 2018년 12월 14일(금)
- 규 모 : 유관기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약 100명
- 프로그램 :

시간	내 용	장소
10:00~10:10	개회사	로얄볼룸 (1F)
10:10~12:20	주최 및 주관기관 관계자 [발제 I] 한국4차산업혁명의 현황과 정책과제 - KDI지식경제연구부 김주훈 연구위원 * 경제학박사 / 前 KDI경제정보센터 소장	
	[발제 II] 4차산업혁명의 한국기업에의 적용 - 인더스트리4.0 협회 한석희 부회장 * 경영학박사 / 서울과학기술대학원 교수	
	[발제 III] 스마트화 사회를 실현하는 신산업혁명과 Industrie4.0 - 미쓰비시전기(주) 야스이 코지 이사장 * 공학박사	
	[발제 IV] 한일협력의 방향성 - 재일한국인과학기술자협회 홍정국 상임고문 * 前 도쿄대학 특임교수, 前 IBM Tokyo Research Lab.부장	
12:20~12:30	폐회	다이너스티 A홀(B1F)
12:30~13:30	중식 (주최 측 제공)	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629 참조

3) 「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」 참가기업 모집 안내

- 사 업 명 : [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] 현장개선 실무교육
- 사업목적 :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
- 생산현장 개선활동의 주체가 될 현장관리자를 육성하는 과정으로, 자사의 현장개선 활동의 리더 역할 수행
- 신청자격
- 뿌리기술 (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의 6대 업종)을 활용하는 기업
- 참가대상 : 현장관리자(조·반장) 및 재직자
- 1사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(하반기 6회 실시, 20명 / 1회)
- 차수별 분산 신청 협조 요망
(단, 차수별 신청 상황에 따라 희망 신청 차수가 변경 될 수도 있음)
- 일정 및 기간 등

구 분	기 간	규 모	장소 등
11차	12.10(월) ~ 12.14(금)	20명	한국금형기술교육원 (경기도 시흥)
12차	12.17(월)~12.21(금)	20명	

- (세부내용) - 형식 : 합숙교육 / 4박 5일
- 구성 : 이론교육(1일) + 모의라인실습(2일) + 기업현장실습(2일)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572 참조

4) 「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하반기 현장개선 진단·지도」 참가기업 모집 안내

- 사 업 명 : [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] 현장개선 진단·지도
- 사업목적 :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
- 국내 제조현장 출신 베테랑 기술자로서 한일재단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과정을 이수한 현장개선 전문가들이 뿌리기업의 제조라인을 방문하여 독자적인 현장개선 진단매뉴얼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, 지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, 코스트다운, 물류개선 등 실질적 효과도출
- 신청자격 : 뿌리기술 (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의 6대 업종)을 활용하는 기업
- 기간 및 모집규모 : 25사(하반기, 수시모집)
- 진단·지도 : 11월 ~ 12월 중순 / 1사당 10일(진단: 2일, 지도:8일)
- 사후관리(현장자문 2회) : 12월~1월초
- 구성 및 내용 : 현장진단(2일) + 현장지도(8일) + 사후관리(2회)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574 참조

IV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- 『지역미래전망인기업 사례(10) 나카지마금속』 2018-10-25
- 『지역미래전망인기업 사례(9) 히노공업』 2018-10-23
- 『새로운 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투자기금 출범』 2018-10-18
- 『지역미래전망인기업 사례(8) 니시카와』 2018-10-16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일본경제의 성장 패러독스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'18.11.21
<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pdf/macro/2018/kumal81121ET.pdf>
- 『엔화환율의 중장기적인 전망』 미쓰비시UFJ리서치앤컨설팅, '18.11.13
http://www.murc.jp/thinktank/rc/report/global_report/global_1811.pdf
- 『보통의 국가를 지향하는 한일양국의 인식개』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, '18.11.10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8e069.pdf>
- 『일본의 FTA이용도 결정요인 : 특혜마진과 원산지규칙』 경제산업연구소, '18.11.9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nts/18e078.html>
- 『생산네트워크의 진전과 일본 국내의 고용재배치』 재무종합정책연구소, '18.11.8
https://www.mof.go.jp/pri/publication/financial_review/fr_list7/r135/r135_08.pdf
- 『일본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동향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'18.11.3
<https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insight/as181102.pdf>
- 『글로벌시대의 투자전략』 미쓰비시UFJ 국제투자전략, '18.11.2
https://www.am.mufg.jp/market/report/pdf/senryaku_181101.pdf
- 『전환점을 맞는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』 일본종합연구소, '18.10.26
<http://www.jri.co.jp/page.jsp?id=33487>
- 『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FTA정책』 환일본해경제연구소, '18.10.25
https://www.erina.or.jp/wp-content/uploads/2018/10/se14430_tssc.pdf
- 『일본 모노즈쿠리 산업의 과제와 대응의 방향성』 경제산업성, '18.10.25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236.pdf
- 『일본기업에 합치된 변혁모델이 보급되면 경제성장은 가속』 맥킨지앤컴파니, '18.10.20
<https://www.mckinsey.com/jp/-/media/McKinsey/Locations/Asia/Japan/Our%20Insights/AmoreeffectivemodelformanagingchangeinJapanJ%20003%201.ashx>

V. 한일경제지표

1) 2018년 10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2,458	-2.3	1.5	2,782	50.5	13.2	25,410	16.3
1	광물성연료	533	90.6	24.8	624	410.7	-22.9	4,279	91.5
2	철강제품	311	-11.3	-0.3	358	23.1	15.1	3,396	4.7
3	정밀화학제품	156	2.4	-1.9	186	60.7	19.2	1,677	30.0
4	전자부품	157	6.4	12.9	167	14.1	6.4	1,551	10.4
5	석유화학제품	174	14.3	-13.4	158	66.3	-9.2	1,847	39.6
6	산업용전자제품	94	-35.3	-16.8	127	17.4	35.1	1,234	0.4
7	수송기계	115	-21.6	21.1	113	10.3	-1.7	1,159	-11.2
8	기계용소공구·금형	80	-30.5	-7.0	92	22.4	15.0	870	-5.6
8	농산물	81	-19.5	-14.8	89	14.2	9.9	915	5.7
10	산업기계	78	0.2	-2.5	77	42.2	-1.3	761	16.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) 2018년 10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4,180	-15.1	-1.3	4,957	12.2	18.6	45,987	1.2
1	전자부품	542	-11.6	-0.6	610	-13.1	12.5	5,400	-2.1
2	철강제품	497	-11.8	-9.1	596	28.4	19.9	5,666	12.9
3	정밀기계	481	-15.9	20.9	539	-4.4	12.1	6,061	-8.3
4	정밀화학제품	379	-5.7	-5.2	468	41.1	23.5	4,025	16.0
5	석유화학제품	354	-11.9	4.1	375	11.5	5.9	3,363	-9.4
6	수송기계	209	-12.0	18.1	334	18.1	59.8	2,332	2.4
7	산업용전자제품	247	-15.5	2.5	269	16.0	8.9	2,711	9.3
8	기초산업기계	195	-29.7	-4.9	229	-12.8	17.4	2,324	-12.7
9	플라스틱제품	172	-26.8	-9.0	206	10.9	19.8	1,859	-5.1
10	산업기계	168	-11.2	1.8	204	39.6	21.4	1,839	1.1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7	2018					
			2/4	3/4	7월	8월	9월	10월
GDP증가율(실질,연율,%)		1.7	3.0	-1.2p)	-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116.1	116.7	114.6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4.5	1.3	-	-0.2	0.2	-0.4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-0.3	-1.4	-	0.1	2.8	-1.6	-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	-1.1	2.2	-	11.0	6.8	-18.3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-0.1	-	0.3	0.3	0	0.3
	전년비	0.5	0.7	-	0.8	0.9	1.0	1.0
실업률(%)		2.8	2.4	-	2.5	2.4	2.3	-
수출액(조엔)		78.3	20.2	20.1	6.7	6.7	6.7	7.2
수입액(조엔)		75.4	19.4	20.7	7.0	7.1	6.6	7.7
무역수지(조엔)		2.9	0.8	-0.6	-0.2	-0.4	0.1	-0.5
경상수지(조엔)		22.0	4.9	-	2.0	1.8	1.8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55.3	14.6	-	4.4	3.3	6.0	-
환율	달러	112.1	109.1	111.5	111.4	111.1	111.9	112.8
	원화(100엔)	1,009	989	1,007	1,008	1,010	1,003	1,003
금리(10년물,%)		0.041	0.089	0.098	0.050	0.101	0.115	0.135
주가(닛케이,엔)		20,209	22,341	22,654	22,309	22,494	23,159	22,691

주: p)는 1차 속보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4) 2018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엔,%)

순위	품목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자동차	10,052	-4.7	7.3	11,356	7.3	13.0	101,206	5.4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518	-1.7	-4.6	3,844	10.5	9.3	34,480	4.8
3	자동차부품	3,497	3.3	10.0	3,440	5.9	-1.6	33,069	1.4
4	철강	2,655	0.6	-11.9	3,031	13.5	14.2	28,594	6.4
5	원동기	2,538	3.9	6.5	2,734	22.1	7.7	24,447	9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5) 2018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2,626	-1.7	-7.6	14,756	9.0	16.9	131,149	9.3
2	미국	12,944	-0.2	3.9	14,299	11.6	10.5	126,431	2.5
3	ASEAN	10,633	4.3	2.5	11,143	8.7	4.8	104,457	7.9
4	EU	7,351	-4.1	2.2	8,113	7.7	10.4	76,439	6.9
5	한국	4,790	-4.6	2.7	4,963	0.3	3.6	48,328	-1.7
6	대만	3,976	0.8	-0.1	4,088	6.4	2.8	38,860	4.3

자료 : 일본 재무성

6) 2018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7,227	37.9	-19.5	7,670	33.7	6.1	71,632	24.7
2	액화천연가스	3,859	42.6	-13.2	4,181	49.3	8.3	38,471	18.6
3	의류·동부속품	3,383	5.5	0.5	3,606	25.2	6.6	27,792	18.6
4	의약품	1,976	-16.3	-12.7	2,823	13.2	42.9	23,752	6.3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339	-7.6	2.2	2,818	13.3	20.5	23,381	1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7) 2018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9월			2018.10월			2018.1-10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6,329	4.2	-11.9	18,817	16.1	15.2	156,942	5.0
2	ASEAN	9,269	0.1	-13.8	11,767	16.4	27.0	102,544	8.0
3	EU	7,559	0.7	-6.3	8,843	10.0	17.0	80,106	11.2
4	미국	7,042	3.1	-10.9	8,566	34.3	21.6	73,734	10.4
5	호주	4,298	30.5	-12.8	4,429	35.2	3.0	41,607	16.4
7	한국	2,754	8.8	2.9	3,107	22.0	12.8	29,063	13.7

자료 : 일본 재무성